

성경적 창조 조명, 창조신앙관 구축

한국창조과학회 '2019 창조신앙교육 축제' 개최

한국창조과학회(회장 한윤봉 교수, Korea Association for Creation Research)가 '2019 창조신앙교육 축제'를 개최했다. 올해 축제는 2016년 처음 개최된 이래 2회째로 미국 창조과학 단체인 AiG(Answers in Genesis)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2019 창조신앙교육 축제'는 9월 30일까지 각 지역별로 개최되며 9월 23-25일까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진행된 '성경적 창조론 해의 석학 특별 강좌, 9월 28일 한동대학교에서 열린 '창조과학 특별 세미나', 9월 28일 신한목자교회에서 치러진 패밀리 콘퍼런스, 9월 30일 남서울교회에서 열리는 목회자 선교사 리더 콘퍼런스 등 축제 기간 동안 한국창조과학회 명사들과 AiG에서 파견된 강사들이 성경적 창조론을 뚜렷하게 조명했다. 이날 강담회에서 한윤봉 교수는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진영의 논리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깨어맞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진화가 일어난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자연은 오직 창조와 심판의 결과만을 보여줄 뿐 그 기원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하나님께서 진화를 이용해 창조하셨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하고 조화로우며 성숙하게 창조되었으므로 진화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다음세대-부모세대-목회자와 교회 리더들까지 모든 세대에게 맞춤형으로 창조신앙관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패밀리 콘퍼런스'는 어린이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털어놓고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어린이 세션에서는 진화론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공룡이 달라졌다!' '뽕뽕 물에 잠긴 지구' '방주 속 비밀을 밝혀라' 등의 강의와 공룡화석 만들기, 파르제 만들기 등 흥미진진한 내용과 활동들이 진행되었다.

미얀마 양곤 국립대 우수교수 한국 방문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나신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이하, 세계총)는 미얀마 지부(지부장 김균배 목사)가 양곤 국립대학교와 공동 교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GLP 4기생들 중에서 우수 교수들을 선발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하였다.

세계총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양곤 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1명, 역사 문화학부 교수 2명 등 3명의 교수(Dr. KHIN MYO WIN, Dr. MYO WIN NWE, Dr. MI WIN HTWE)와 리더십 연구소장 김균배 박사 부부 등 5명의 항공료와 호텔을 제공하였으며, 세계총 본부와 세계총 직전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총회장으로 있는 합동개혁 총회를 방문하여 선물을 주고받았으며 간담회와 만찬을 가졌다.

특히 한국 방문단은 지구촌 코리아 디아스포라 중에서 특별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의 한글교육과 한국 교육의 선진화 방안 관련 연구 검토 및 간담회에 참석하였

으며, 한국 항공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교류 증진을 위한 워크숍 및 캠퍼스 투어를 하였으며, 송도 국제도시 유엔 기구를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왔다.

세계총 직전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세계총이 해외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30여명 한국인 선교사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선교사들의 사역에 힘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세계총 미얀마 지부장 김균배 목사

는 금번 한국 방문을 통해 많은 배움과 경험, 뿐만 아니라 참여자 개개인들의 지도자 역량 개발에 보람된 시간이었고 또한 비기독교인들이 있었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하며 세계총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총 미얀마지부는 양곤 국립대학교 내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 기수별 종강 후에는 우수 수료자들을 평가와 심사를 통해서 선발하여 아시아 지역 국가를 방문하며 21세기 글로벌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성민원, 현대캐피코 봉사단과 추석맞이 무료급식

사단법인 성민원(이사장 권태진)은 현대캐피코 반포봉사단과 성민원무료급식센터 추석맞이 행사 '어르신 한끼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비롯해 현대캐피코 봉사단, 성민원무료급식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현대캐피코 봉사단은 성민원무료급식센터와 명절맞이 행사를 12번째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10일(화) 성민원무료급식센터(군포제일교회 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 현대캐피코 봉사단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고 영양식과 오리고기 등을 대접했다.

성민원 권태진 이사장은 "매년 성민원에 관심을 갖고 내 부모를 모시듯 정성껏 봉사해주는 현대캐피코 봉사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용용 현대캐피코 봉사단장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어르신들과 함께 정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행복하다"며 "성민원 무료급식센터의 귀한 사역에 앞으로도 힘을 보탬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캐피코는 '함께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지향하는 사회공헌 철학을 이어받아 지역사회 및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들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사랑 나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단법인 성민원은 1988년 군포제일교회 부설 사회복지기관으로 설립되어 21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 55주년 정기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는 지난 9월 16일(월) 오전 11시 군포동 평안교회에서 제 5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장에 양정섭 목사를 유임하기로 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에 힘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이

영춘 목사의 대표기도, 임정태 목사의 성경봉독, 총회장 양정섭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양 목사는 사 40:27-31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양망하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소원을 만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2부 정기총회에서는 임세준 목사(부총무)의 기도와 전대식 목사(서기)의 총대보고에 이어 양정섭 목사(총회장)가 정족수가 되므로 기회를 선포했다. 회의록서기 최은희 목사를 임시 서기로 임명하여 회의내용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전 회의록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고, 시업보고, 재정보고, 각 노회보고, 임원회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결의했다.



임원선거에서는 총회장 양정섭 목사를 비롯해 부총회장 김홍룡 목사, 이영춘 목사, 양정은 목사, 한세진 목사,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 부총무 임세준 목사, 협동총무 김두경 목사, 강대하 목사, 서기 전대식 목사, 부서기 민경구 목사, 회의록서기 최은희 목사, 부회 의록서기 이영숙 목사, 회계 김영희 목사, 부회계 김병섭 목사, 감사 한성욱 목사, 이순례 목사 등 모두 유임되었다.

예장대신 제54회 총회 열고 황형식 총회장 추대

"교단 성장 극대화를 위해 최선 다할 것"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제54회 총회가 '우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히 12:2)를 주제로 지난 9월 9일(월) 대전 한화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66개 노회 중 54개 노회가 참여했고, 총 대의원 401명 중 308명이 출석함으로써 개최됐다.

과거 백석과 대신의 교단 통합 당시 대신의 이름을 지켜낸 이래 4년째를 맞는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내실화와 더불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들이 상정됐다. 이를 보여준 이번 총회 임원선거에서는 모든 임원후보들이 단독으로 입후보함으로써 만장일치 박수로 축복 속에 임원이 꾸려졌다. 이로써 총회장 황형식 목사(성황성일교회)와 부총회장 이상재 목사(한계하는교회), 임면재 장로(영원교회)를 비롯해 서기 강문중 목사(인천주님의교회), 부서기 홍상표 목사(여자씨교회), 회의록서기 모연구 목사(갈릴리교회), 부회의록서기 송재권 목사(동문교회), 회계 응승복 장로(말복교회), 부회계 김관선 장로(한길교회) 등이 54회기 동안 교단을 섬기게 됐다.

다만 총무 후보 조강진 목사에 대해서는 연임 여부에 논란이 일며 현행법대로 신임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했다.

예장(연합장신), 제55회 정기총회

송기호 목사, 총회장 만장일치로 추대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장신)총회 제55회 정기총회가 지난 9월 2일부터 3일까지 강원도 양양 낙산본도에서 열려 총회장 송기호 목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한편 임원진을 개선했다.



"하나님여 나를 생각하시. 나의 눈을 밝히소서(시 13:3)"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교역자 자질향상을 위한 연정교육 등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처리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홍인표 목사 사회로 부총회장 권승순 목사의 대표기도, 신학노회장 오영순 목사의 성경봉독, 부총회장 이승재 목사의 갈 5:13 말씀을 본

문으로 한 '자유의 율법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 총회장 송기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승재 목사는 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자유'라고 말한다."며,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노릇 하는 제자가 되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목회자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총회장 송기호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먼저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성경을 열심히 읽는 습관을 기르고, 성경을 통해 연구하고 배우는 목회자가 되라"며, "개 교회 제단은 목사의 심판대이니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지키고 마지막까지 지리의 복음을 비추는 목회자들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예장 개혁선교, 제104회 정기총회

총회장 박남수 목사, 총무 강동규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선교 제104회 총회가 지난 9월 7일(토) 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재 총회본부에서 개최되어 총회장에 박남수 목사, 총무에 강동규 목사를 각각 재선출하고, 교단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에서 강동규 목사는 출 18:21, 신 1:13 마 7:22-2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지혜로운 지도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경에 기록된 대 회된 동 총회는 교단의 발전과 2019년 여름 수양회를 기도와 재정, 인적으로 지원한 공로를 인정해 대구 병주시립교회 담임 김신자 목사에게 공로패를 총회원 이름으로 전달했다. 또한 동 총회는 한국교회연합과 일치를 위해 교단의 모든 힘을 결집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104회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사)해돋는마을, 추석 한가위 잔치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 위해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정현일 목사, 신생 명나루교회) 엘티브노인대학(학장 최애스퍼 신학대학교)이 주최하고 사회적기업 쉼터서 울(대표 홍석봉 단장)이 주관한 '어르신 초청 추석 한가위 잔치'가 지난 9월 9일(월) 열려 정성으로 준비한 사랑의 선물을 증정하는 등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연에는 가수 박일준 씨를 비롯한 5080토리토리 중정단이 출연하여 큰 기쁨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가수 박일준 씨는 감동의 멋진 재담으로 어르신들에게 멋진 노래와 웃음을 선사했다. 이날 정현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늘 어렵고 소외된 곳

을 찾아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박일준 가수와 쉼터서울 흥단장과 중정단이 감사를 전하고 어르신 모두 영유간에 더욱 감동하시길 바란다"는 격려와 이번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 용기를 전했다.

해돋는마을 엘티브노인대학은 매주 5회 각 분야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식사봉사도 병행하고 있다.

